

## 시네-댄스에 나타난 플래너터리 댄스의 의미 연구

### Research on Meaning of Planetary Dance in Cine-Dance

최 경 실

스프링 댄스 씨어터

Choi Kyung-sil

Spring Dance Theater

#### 요약

20세기 이후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와 결부된 인간성 상실과 정신적 빈곤에서 오는 다양한 징후에 대한 묘약으로 떠오른 소통과 치유의 범사회적 공동체적 교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춤의 형식을 도입한 새로운 영화 장르인 시네-댄스에 나타난 플래너터리 댄스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 I. 서론

20세기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아 많은 예술가들은 장르의 확장과 다원화, 동시에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선구적 실험활동을 해왔다. 삶과 예술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시도해왔으며 그런 과정의 연장으로 시네-댄스라는 새로운 영화 장르에서 춤과의 융합을 꾀하였다. 또한 춤의 원시성이 가진 몸짓언어의 다의성과 몸이 가진 역사성을 통하여 이 사회가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 춤이 가진 내적 원리를 이용하여 다큐 영화에서 내레이션의 일방적 소통을 춤으로 대체하여 상상의 확장을 통한 양방향 소통을 시도하였다. 모든 생명의 상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춤의 접근은 플래너터리 댄스의 의미와 상통하며 이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전예술계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II. 본론

### 1. 시네-댄스의 특징

시네-댄스(Cine-Dance)는 시네-포엠(Cine-Poem)에서 차용한 용어이다. 기존의 댄스비디오 혹은 비디오댄스에서는 춤이 주(主)가 되어 영상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시네-댄스는 영화(영상)가 주(主)가 되어 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장센의 활용과 주제를 드러나게 하는 소통의 방식에서 확연하게 다르다. 시네-댄스의 소통방식은 관객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발산시키는 '적분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내레이션을 통해 그 주제를 쉽게 일방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면 시네-댄스에서는 그 역할을 춤이 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관객의 상상력을 기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수렴시키게 한다면 시네-댄스

는 관객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발산시켜 적분화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언어가 아닌 춤이라는 형식을 통해 구현되며, 춤이 가진 춤성 이전에 그 재료인 몸이 가진 몸의 의미를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몸은 사회, 문화, 역사, 혹은 도덕이라는 수많은 코드들이 공시적, 동시에적으로 작동하고 만나는 장소이자, 또한 그 역적 탈코드화가 일어나는 창조적 생명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다<sup>1)</sup>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에서 몸은 영혼과 언어와 사회 안에 머물러 서로를 엮어 나가는 모든 것의 중심지이자 축이고 "나는 곧 나의 몸"이며 주체로서의 '몸의 실재성'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하는 중심인 것이다<sup>2)</sup> 몸은 주어진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로 다가서는 존재로 활동하는 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몸은 어떻게 해체되고 확장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몸의 담론을 가지고 표현하는 춤을 통해 관객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발산시켜 일방 통행이 아닌 관객에게 상상을 통한 참여의 기회를 주어 양방 소통의 열린 구조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춤의 방식은 즉흥이다. 무의식적인 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을 감지하고 몸에게 말을 걸며 움직임이 솟아오르게 하는 즉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을 선택함으로써 제한된 사고와 유형들에서 벗어나 감각적이고 충동적으로 인간 감정의 핵심에 도달하려고 하며, 몸이 가진 상상력의 깊이와 지혜를 가늠하고 인습에 의해 차단된 가능성들을 발견하여 몸 내부 풍경으로 파고드는 과정 자체와 통찰의 순간을 포착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즉흥춤은 언어를 넘어서 심원한 것을 보게 하며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능성을 불러일으켜 삶의 모든 갈등과 상처를 화해의 가능성으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여 자신과 관객의 영혼에 교감하는 힘을 가져다 주며 이 과정 속에서 영화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관객 스스로 느끼고 상상하게 한다.

미장센 활용법에서도 댄스비디오는 영화적이라기보다 단지 실내의 춤을 실외로 옮겨와 작업을 진행하며 시네-댄스는 영화적 이야기를 갖추고 있으며 카메라 활용 및 의상, 음악, 편집, 텍스트 활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촬영 방식 또한 시네-댄스는 현장에서 춤을 추며 카메라와 무용가의 물리적 공간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나가는 행인, 자동차, 자전거, 동물 등등이 모두 자연스럽게 출연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카메라와 무용가의 정신적 공간 즉 주제 면에서의 인식적 측면으로 객관과 주관, 객체와 주체가 분리되는 현실과 사건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플래너터리 댄스의 의미

안나 할프린(Anna Halprin, 1920-)은 무용수에게 한정된 무대와 관객으로 설정된 상황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춤을 무대 밖으로 확장시키고 동시에 일반인들에게도 나누어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선구적 활동을 해오면서 삶과 예술이 서로 부양하며 그 과정에서 더욱 확장되고 고양된 경험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상처 난 사람들을 치유하고 평화와 신뢰를 가져오기 위해 세상을 통합시키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이들의 범사회적 교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플래너터리 댄스(Planetary dance, 행성의 춤)로 발전시켰다. 이것은 무용수와 비무용수의 구분을 두지 않고 일반인들이 모두 예술인이 되어 춤을 변형의 매개체로 사용하여 생성해낸 느낌과 에너지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많은 영향과 이로운 변화를 일으켜 인간이 더 이상 소외되고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나와 타인이 하나가 되고, 우리와 자연이 하나가 되며 나아가 지구와 함께 호흡하여 개개인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확장하며 생명을 축복하고 영혼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으며 에너지와 동작과 공동체를 포함한 일종의 의식이자 환경적이고 실천적이며 정적인 춤이다<sup>4)</sup>

플래너터리 댄스는 지구의 모든 존재들의 영혼과 생명의 치유, 공동체의 쇄신, 평화를 기원하며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적 춤이다. 이를 통해 이 사회가 처한 위기와 갈등을 서로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해결하게 하고 나아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동적 인식을 함으로써 구성원들과 서로 이해하고, 스스로 화해하고 치유하게 된다.

## Ⅲ. 결론

춤의 본질은 이미 치유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춤의 고유성을 융합 혹은 도입하여 다큐 영화의 한계점일 수 있는 일방적 소통으로부터 춤의 상상력을 통한 다의적 수용과 양방적 소통의 기회를 열어 놓게 하였다. 또한 춤을 춘 것에 관한 어떤 증거, 흔적이 없는, 움직임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것도 남길 수 없는 순간 예술의 특성으로부터 춤의 실체를 남기고 기록하고 상기 시켜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플래너터리 댄스라는 공동체적 춤으로 지구의 생명, 평화를 기원하며 참여자 스스로 치유와 타인, 세계와의 대화, 접촉으로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진정한 삶의 가치와 본질을 회복됨을 느끼고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영상으로 기록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접 체험하며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21세기의 화두인 '소통'과 '치유'라는 묘약을 제시한 시각예술인 영화 속에 순간예술인 춤의 융합은 그 가치와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 시대, 지금 예술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할까를 생각할 때 시네-댄스라는 새로운 장르가 추구하는 방식과 플래너터리 댄스의 만남은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 ■ 참고 문헌 ■

- [1] 김정현, "니체의 몸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 [2] 정화영,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서울, 아카넷, 2005.
- [3] 이정명, "종교적 삶과 커뮤니티 아트의 새로운 인류학적 전망", 몸지, 9월호, 2006.
- [4] 김진희, "안나 할프린의 삶과 예술 철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